

■ KIA 서재응 어제 입단식... '호랑이 유니폼' 입다

“야구명가 진재함 보여 주겠다”

“화끈한 성격... 후배들과 의사소통 문제없어”

“선·후배들과 함께 'V10'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미국 프로야구에서 돌아온 '나이스 가이' 서재응(30·투수)이 드디어 호랑이 유니폼을 입었다.
서재응은 17일 광주시 서구 내방동 기아자동차 제1공장 의전실에서 입단식을 갖고 공식적인 'KIA팬'이 됐다.
배번 '40'이 새겨진 유니폼과 모자를 받은 서재응은 “개인 승률보다는 팀 승리를 위해 보탬이 되는 선수가 되겠다”면서 “야구명가' 타이거즈가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입단식에는 김조호 단장과 조범현 감독을 비롯한 KIA 코칭스태프와 프런트 외에도 KIA자동차 임직원들이 대거 참석해 서재응의 입단을 환영했다.
-입단 소감은.
▲팬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내년엔 전경기 시절처럼 좋은 공을 던져 팀에 보탬이 되도록 하

겠다.
-내년 시즌 목표를 하는가.
▲개인적으로 승률을 올리기 보단 팀의 승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젊은 후배 투수들과 함께 팀의 승률을 올리는 데 주력하겠다.
-미국생활에 대한 아쉬움은 없는가.
▲10년간의 메이저리그 생활을 정리한 것은 아쉬움이다. 하지만 미국에서 28승을 한 것에 만족한다. 또 힘이 남아있을 때 고향팀으로 오게 돼 기쁘다.
-군기반장으로서 팀내 역할도 기대되는 데.
▲후배들의 군기를 잡거나 하는 성격은 못 된다. 다만 내가 성격이 화끈하기 때문에 후배들과의 의사소통은 잘 되리라고 생각한다. 미국에서 배운 것 중 좋은 것이 있으면 후배들에게 적극 전수토록 하겠다. 후배들은 운동만 열심히 하면 된다.
-한국야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작년 WBC때 한국 최고의 선수들과

같이 뛰어봤으나, 아직은 잘 모르겠다. 내가 열심히만 한다면 충분히 승산은 있다고 본다.
-KIA가 올 시즌 골짜기를 했는데.
▲골짜기를 했다고 해서 우승을 못하란 법은 없다. 미국과 일본의 야구 명문인 양키스나 요미우리도 매년 우승을 하는 건 아니다. 이종범 선배와 최희섭 등과 힘을 합친다면 좋은 성적을 낼 것으로 확실하다. 내년이 아니더라도 내가 뛰는 동안 팀이 강팀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미국야구에 도전하는 후배들에게 조언 한마디.
▲실력을 떠나 기회만 된다면 도전하는 것이 좋다. 되든 안되든 도전을 해야 한국 야구가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
-현재 훈련은 어떻게 하고 있나.
▲그동안 수영과 러닝을 주로 했다. 지난 9월 이후 공을 던져보진 않았지만 지금 공을 던지면 120km 정도 나올 것 같다(웃음). 내년 1월 팀 스프링 캠프에 합류해 본격적으로 몸 만들기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편 서재응은 18일 구단 남회에 참석한 뒤 서울로 상경. 개인일정을 소화하고 22일 신변정리를 위해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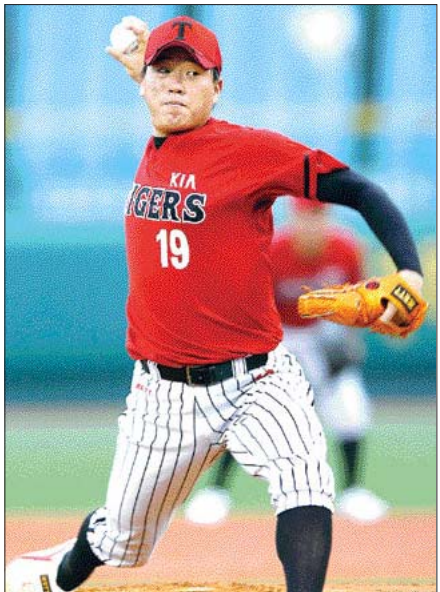
서재응이 17일 광주시 서구 내방동 기아자동차 제1공장 의전실에서 열린 KIA 입단식에서 유니폼을 입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조범현 감독, 서재응, 김조호 단장.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조범현 감독 “배번처럼 40승 해주면 좋겠는데”

“배번처럼 40승만 해주면 팀도 좋은 성적 나오겠지요.”
조범현 KIA 감독은 17일 열린 서재응의 입단식에서 내년 시즌 목표와 서재응에 대한 기대를 묻는 질문에 “(서)재응이가 배번처럼 40승만 해주면 상위권 진입도 가능하다”는 재치있는 답변을 내놓았다.
입단식에서 서재응에게 배번 '40'이 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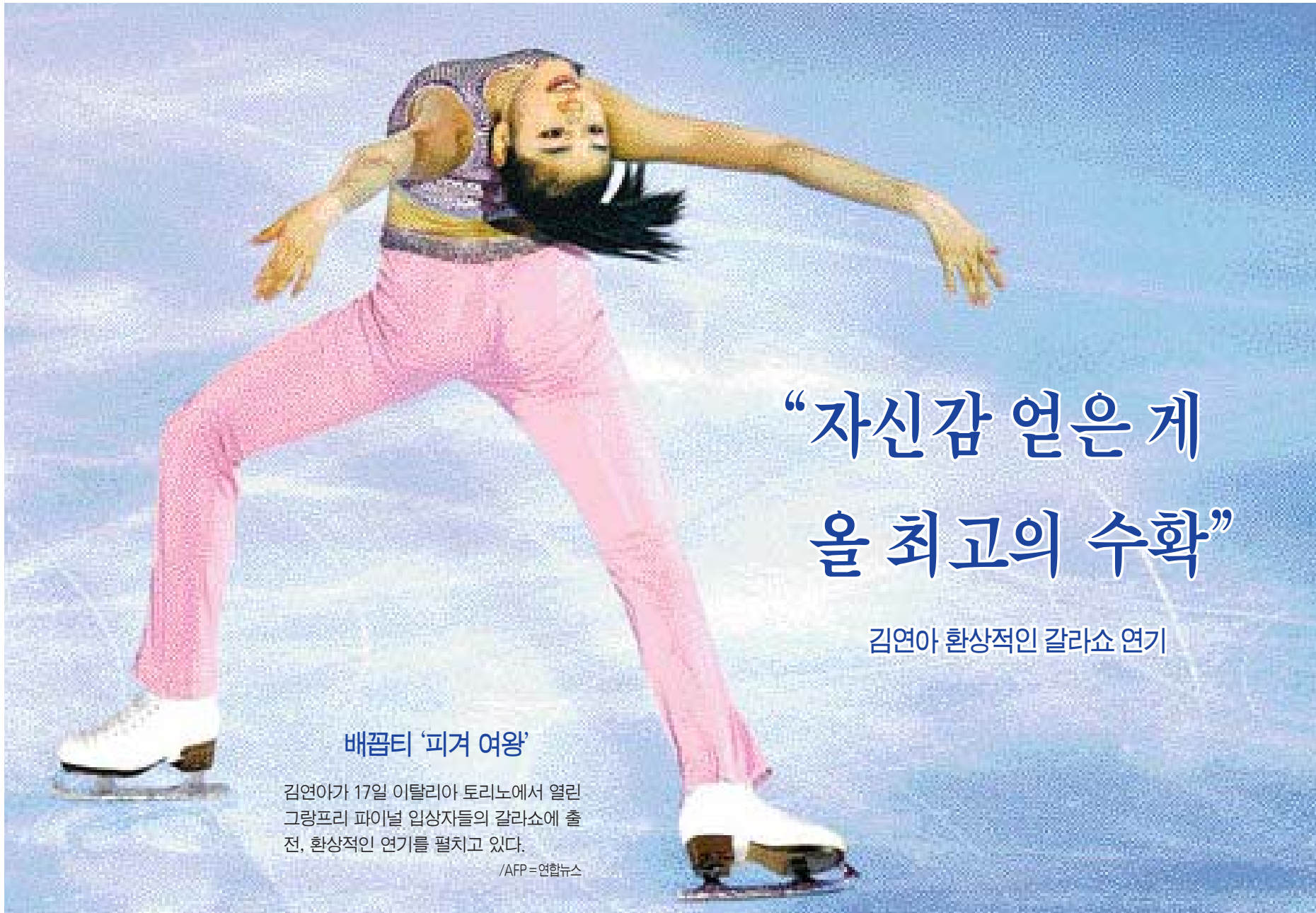
린 흰색 홈 상의 유니폼을 직접 입혀준 조 감독은 “40승은 농담이고, 재응이에게 큰 부담을 주진 않겠다. 5승을 해도 좋고 6승을 해도 좋다. 한국야구에 적응하는 게 우선”이라며 “오히려 주변의 기대에 부담을 느껴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할까봐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서재응의 인하대 선배이기도 한 조 감독

은 “우리 팀에는 젊은 투수들이 많은데, 재응이가 미국 선진야구에서 배운 기량을 후배들에게 잘 전수해 주길 바란다”며 “후배들과 호흡을 맞춰 개인적인 성적보다는 팀의 1승을 소중히 하는 선수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조 감독은 서재응의 1선발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그의 공을 보지 못했다. 일단 기량을 점검한 뒤 결정하겠다”면서 “내년 시즌 선발진의 구성은 스프링 캠프 때 생각할 문제”라고 말을 아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KIA 신용운 투수
경찰청야구단 입단

KIA '미들맨' 신용운(24·사진)이 호랑이 유니폼을 벗고 경찰청 야구단에 합류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14일 신용운 등 7명의 추가 합격자를 발표했다. 경찰청은 이로써 지난 11월 1차 합격자 18명에 이어 모두 25명의 모집을 완료했다.
이번 추가 합격자 명단에는 신용운을 비롯해 우완 노병오(현대), 외야수 최훈락(KIA) 등 7명이 이름을 올렸다. 1차에선 우완 손승락, 내야수 조영훈(삼성), 외야수 황성용(롯데) 18명이 선발됐다.
신용운의 경찰청 입단은 병역 문제 때문이다.
올해 만 24살인 신용운은 내년 시즌에 필경우 시즌 도중 입대 영장이 나오면 현역병으로 들어가야 하는 위험 부담이 있었다.
신용운은 “내년에도 KIA에서 뛰고 싶었지만, 군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는 판단 때문에 경찰청 야구단에 입단하게 됐다”며 “제대 후 좋은 기량으로 팬들을 찾아뵙겠다”고 말했다.
김용철 경찰청야구단 감독은 “신용운의 팀 합류로 '전군만마'를 얻은 기분”이라며 “내년 시즌엔 좋은 성적을 기대해도 좋을 듯하다”고 반겼다.
한편 2002년 신인 2차지명 1순위로 KIA에 입단한 신용운은 모두 240경기에 나서 411.1이닝동안 33승 21패, 22세이브, 23홀드, 방어율 3.33을 기록했다. 올 시즌엔 40경기(79이닝)에 나서 8승 10패(평균자책점 4.73)로 호투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자신감 얻은 게
올 최고의 수확”

김연아 환상적인 갈라쇼 연기

배꼽티 '피겨 여왕'

김연아가 17일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열린 그랑프리 파이널 입상자들의 갈라쇼에 출연, 환상적인 연기를 펼치고 있다.
/AFP=연합뉴스

2007~2008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스케이팅 시니어 그랑프리 파이널 여자 싱글 2연패를 달성한 김연아(17·군포 수리고)가 자신감을 올린 최고의 수확으로 꼽혔다.
김연아는 17일 새벽(이하 한국시간) 이탈리아 토리노 팔라벨라 빙상장에서 그랑프리 파이널 입상자들이 출연한 갈라쇼를 마친 뒤 가진 인터뷰에서 “이번 대회를 비롯해 그랑프리 시리즈에서 몇 가지 실수를 했지만 연연하지 않고 남은 연기에 집중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시즌을 통해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알게 됐다”며 “실수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즌보다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내 자신의 연기에 자신감을 갖게 된 게 가장 큰 수확”이라고 강조했다.
김연아는 특히 “새 기술을 개발하기 보다 기존 프로그램을 제대로 소화하고 점프와 스핀 등의 기술들을 더 정확하게 구사해 완벽한 연기를 보여주고 싶다”는 바람도 빼놓지 않았다.
한편 김연아는 이날 갈라쇼에서 핑크빛 배꼽티 의상을

로 차려 입고 갈라쇼 프로그램인 '저스트 어 걸'을 실수 없이 깔끔하게 소화해 관중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특히 김연아는 갈라쇼가 끝난 뒤 이어진 대회 폐막 만찬 자리에서 참가 선수들을 대표해 유창한 영어로 축사를 낭독, 대회 관계자들과 참가자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기도 했다.
김연아는 축사에서 “대회조직위원회를 비롯해 ISU와 심판진은 물론 각국 선수들 덕분에 토리노에서 행복한 일 주일을 보냈다”며 “내년 3월 스웨덴에서 펼쳐질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다시 만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키스 A. 로드리게스 “약물 복용한적 없다”

미국프로야구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고 있는 알렉스 로드리게스(32·뉴욕 양키스)가 “경기에 항상 물질과 같은 약물을 복용해 본 적이 없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로드리게스는 17일(한국시간) 방영된 지상파 방송 CBS 시사프로그램 '60분'에 출연, 스테로이드 및 성장 호르몬과 같은 약물들

복용했느냐는 물음에 단호하게 ‘아니다’고 답했다.
그는 “야구장에서 (누군가에게) 압도당한다고 느껴본 적이 없다. 예전 시애틀에서 신인 시절부터 훈련해왔던 그대로만 해도 경쟁하는 데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약물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기량만으로도 충분히 기량을 끌어 올릴 수

있다고 자신했다.
2005년 ‘약물에 취해’라는 자서전에서 현역 시절 약물 복용 사실을 시인하고 동료 선수들도 고발한 슬러거 호세 칸세코는 약물 복용에 연루된 88명의 선수 명단을 폭로한 ‘미철 보고서’가 14일 공개된 뒤 “로드리게스가 왜 빠졌는지 알 수 없다”며 의문을 표

‘손가락 수술’ 이승엽
이달말부터 동계훈련

10월25일 왼손 엄지 내측 인대 재건 수술을 하고 재활에 몰두해 온 이승엽(31·요미우리 자이언츠)이 이르면 성탄절 직후부터 본격적인 동계 훈련을 시작한다.
겨울마다 이승엽의 체력훈련을 도맡아 온 오창훈 대구 세진 헬스 관장은 16일 “이승엽의 엄지 상태를 확인한 뒤 25일 직후부터 근육 훈련을 시작할 예정이다. 4년간 겨우내 꾸준히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왔기에 보름 정도만 훈련량을 늘리면 금세 근육이 회복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환부 치료를 전념해 온 이승엽은 통증은 많이 줄었으나 재활에 대한 염려 탓에 러닝으로 체중을 관리할 뿐 무거운 기구를 드는 웨이트 트레이닝은 삼갔다.
오 관장은 “이따금 승엽이가 헬스장을 찾는데 상처가 덧나지 않고 완벽하게 회복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무거운 것을 들 수 있기에 현재 근육 운동은 무리다. 성탄절 직후 또는 연초부터 훈련을 시작하면 1월 중순께 예년 페이스를 따라잡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관건은 역시 방망이를 언제 쥌 수 있는냐는 것. 오 관장은 “근육 운동으로 몸을 천천히 만든 뒤 내년 1월 중순 늦어도 스프링캠프 참가 전에는 타격 훈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귀국하자마자 체력 및 근육 훈련을 했던 예년과 달리 올해는 두 달을 폭 쉬고 바벨을 드는 것이기에 도리어 피로 회복차원에서 더 좋을 수도 있다”고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지난해 10월 왼쪽 무릎 관절 수술을 했던 이승엽은 올해 1월 갑작스럽게 맞은 모친상 탓에 1월15일에서야 처음으로 경산 볼파크에서 러닝 훈련을 치렀다.

골프·연도 회원권개 전환기업
특별회원권
골프장 시애틀 3,500 원, 강원 900 원, 5,200 원
남광주 4,300 원, 파인힐스 12,200 원
승주 8,200 원, 힐링 7,400 원
상담문의 (062)351-0095